

원탁교육과 인문학 교육을 통한 학문 인프라 구축

강치원 강원대 사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작년 한해 동안 교육부는 수많은 교육개혁안을 쏟아냈다. 대학관련 정책만 해도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 대입 무시험전형과 교장추천제,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국·공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설치령 개정안, 교수임용방식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하나 둘이 아니다.

진행되고 있는 대학개혁은 두 가지 동력에서 비롯된다. 우선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 뿌리를 둔 파시즘 교육체제를 개혁하여 대학의 민주화, 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이 측면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50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정부에 거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개혁이 모두 이런 동기에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자율성, 창조성, 효율성, 세계화, 경쟁력, 수요자 중심을 내세우면서 대학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 같은 시장경제원리 도입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함으로써 대학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의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더욱 그렇다. 교육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말하는 것은 교육다운 교육을 포기한 데서 나온 것이다. 학부제와 연구중심 대학 등 교육부의 대학개혁의 정책들 속에서 우리는 파시즘 교육체제의 극복이라는 긍정적 의

도와 신 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이라는 부정적 의도가 서로 뒤섞여 있음을 본다.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요청된다.

대학에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은 학문을, 특히 기초학문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염려에서 '97년부터 인문학을 둘러싼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 토론회의 결론은 "대체로 국가의 지원이 응용학문에 비해 기초학문인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 기업의 연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부나 학술진흥재단 만이라도 인문·사회과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 같은 주장에 덧붙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다른 데 있다. 첫째로 우리가 안고 있는 위기는 인문학 자체의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로 인한 '학문 인프라의 위기'라는 점이다. 학문 인프라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그 하나는 기초학문의 육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말이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구실을 하는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분야가 대학에서 경시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학문연구의 토대로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을 학문발전과 무관한 하위개념으로 간주해버리고, 학문의 인프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 대학이 학문과 교육에서 생산성이 없는

이유는 대학의 학문과 교육을 위한 그 종적, 횡적 연계성이 없는 데 있다. 대입제도의 잘못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파행으로 치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input)에서 종적 연계성이 없다. 취직시험이나 국가시험이 대학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output)에서의 종적 연계성도 없다. 대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의 교수와 학생 사이의 교육적 연계성 역시 마찬가지다. 연계성이 없는 것은 이 같은 종적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횡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횡적 연계성이란 우선 학문이나 교수들 사이의 학제간 연구와 상호소통을 말하고, 또한 대학과 사회의 협동 관계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교수와 학생 사이의 학문적 관계를 말한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종적 연계성은 교육적 관계로, 그 횡적 연계성은 학문적 관계로 이루어진다.

셋째로 교수와 학생 사이에 교육적 관계만 있고 학문적 관계가 없는 것은 연구와 교육이 따로 노는 데서 비롯된다. 대학 안에서 연구와 교육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니 학문에 생산성이 없게 된다. 연구와 교육이 따로 논다는 말은 교수가 혼자서 연구한 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하고 학생과 토론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교수가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학문의 파트너로 인정할 때 연구와 교육은 분리되지 않는다. 학생이 교수의 학문적 파트너가 되는 수업은 강의실 안에서 문답, 대화,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수업이다.

넷째로 우리 대학의 학문연구가 생산성을 가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과 평가가 따로 놓기 때문이다. 교육과 평가가 따로 논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가르친 교수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법대생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따로 신림동 고시학원에 다녀야 하는 이유나 대학의 중간, 기말시험 때 커닝을 위한 낙서가 범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로 상징되는 대학 서열화 등 지나친

경쟁이 오히려 우리의 잠재력이나 사고력을 막고 따라서 학문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유엔 아동기금(유니세프)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제도가 지나치게 경쟁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아동들의 잠재력을 길러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14세인 중학교 2학년생의 수학과 과학 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게 뭐 대단한 것인가? 이것은 단지 지나친 경쟁이 초래한 기형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선진국은 그런 경쟁에서는 우리보다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지나친 경쟁이 학생의 잠재력 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단다. 바로 서울대로 상징되는 빼돌어진 경쟁 말이다. 경쟁을 하지 말자는 말이 결코 아니다. 올바른 경쟁은 개인의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어야지, 대학 입학이라는 학력과 학벌 등을 따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 학문이 안고 있는 이 같은 다섯 가지 문제를 대학 교육의 종적 연계성과 횡적 연계성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자.

2. 대학입학과정에서의 교육의 종적 연계성

대학은 고등학교로부터 학생을 받아들여 전문지식과 학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들이 대학공부를 수행할 수학적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과정 사이에 연계성이 없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을 별로 찾아보지 않고도 공부할 수가 있다. 예컨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 자습서, 단어집, 숙어집, 문제집, 학습서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참고서들의 문장은 서술식보다는 개조식으로 되어 있다. 내신시험이건 수능능력시험이건 그

문제가 5지 선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가는 가르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OMR 카드와 컴퓨터가 한다. 찍기만 잘하면 되니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교육이 학문의 인프라로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의 평가 방식이 '고르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이 창조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역시 아니다. 모범답안 학습서가 판을 치기에 하는 말이다. 창의력이란 5지 선다형의 보기를 벗어나 존재하는 법이다.

고등학교 교육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 학문은 회망이 없다.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기본인데, 그 인문학적 교육이 안 되고 있으니 대학에서 학문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근 서울시내 J여고 중간고사에 출제된 불어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프랑스 인사말인가요?

1) Salut.	2) Good morning.
3) Guten Tag.	4) 안녕하세요.
5) 일본어로 쓰여진 인사말.	

이 같은 시험문제의 출제가 가능한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놓고 교육하고 있는 곳이 우리 대학이다. 인문학적 토대가 없는 학생들을 놓고 학문과 교육을 해보아야 그것은 허깨비이다.

대학입시에 논술시험의 도입은 수능의 객관식 고르기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데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논술시험은 어느 정도 우리 초·중등교육을 위해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논술시험이 도입되고 나서 국문학 전공자와 철학 전공자들이 서로 자기 영역이라고 싸운 적이 있다. 과연 논술이 국문학이나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까? 어디까지나 논술은 시험방식일 따름이지 과목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과목에 논술의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역사도 논술식

으로, 영어도 논술식으로 하자는 말이다. 우리의 논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 논술마저 모범답안이나 예시답안이니 하여 암기식이 되고 있다. 모범답안이 학문을 망치는 것임은 당나라 때 『5경정의』라는 책이 나오면서 당나라의 학문이 쇠퇴한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또 논술의 원래 의미는 논리적 쓰기(記述)뿐만이 아니라 논리적 말하기(口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논술을 쓰기로만 알고 있다. 말하기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말하기가 전제되지 않는 쓰기란 잘못된 교육이다. 문답, 대화, 토론의 교육이 논술교육에 앞서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튼 대학입학의 방식이 개선되어야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인문학적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 교육은 평가방식에 의해서 좌우된다.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단답형에서 서술형으로, 고르기에 정답이 없는(open-ended) 방식으로, 쓰기 평가 위주에서 말하기 평가(구술시험, 토론시험) 병행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를 위해 초·중등학교 시절에 읽기와 쓰기, 말하기와 토론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중등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평가방식이 잘못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대학입학 평가 주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생에 대한 평가는 가르친 교사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과 평가가 따로 따로 놓면 교육이 뺄어진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대학 무시험 전형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평가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시험 전형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대학 서열화가 해소되어야 한다.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무시험 전형만으로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려우며,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고교 등급제는 볼을 보듯 뻔하다. 고교 등급제는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입시교육을 부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학의 학문 인프라 구축도 요원하다고 본다.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자는 말은 대입을 위한 경쟁을 없

애자는 말이 아니다. 대학입학으로 인생이 좌우되는 대학 서열화가 워낙 막강하기에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교력도 죽어가고 있다.

고교의 등급화는 교육을 과행으로 이끈다고 그 병폐를 지적하면서 그 보다 더 심한 등급화인 대학의 서열화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대의 기득권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이 학문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의 서열화(대학 간판이라는 학벌)와 학문의 서열화(인기학과)를 해소해야 한다. 공립과 사립 사이에,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 사이에, 응용학과 기초학문 사이의 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 대학의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열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 문제를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서울대가 사회에 끼치는 병폐를 지적하는 것은 서울대나 서울대 출신이 실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서열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 학문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내적 경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외적 학문 경쟁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해야 한다.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철폐하고 국공립학교 설치령으로 통합해야 한다. 국공립학교 설치령도 필요 없이 고등교육법만으로 충분할 정도로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대학까지 조장할 수 없다면 국공립 대학만이라도 학문영역별, 지역별, 대학별로 분리재편, 통폐합해야 한다. 물론 이것도 학문영역별 대학 서열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 서열화 - 대학 간판 - 보다는 바람직하며, 대학간 경쟁, 교수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적 대안이다. 서울대에서 법학, 경영학, 의학 등 인기 응용 학문을 분리하여 사립대학으로 옮겨야 한다. 대입제도는 고등학교 졸업자자격제와 대학 수험능력의 자격제적인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 대학 입학자격을 연구 대학과 전문대학, 두 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도 있다. 입학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나 입학할 수 있는 대학입학 개방형적 요소가 도입되어야 교육이 정상화된다.

대학 서열화와 학문 서열화가 해소되면 초·중등교육은 정상화되며 따라서 학문과 전문지식의 인프라로서 인문학적 소양이 길러진다. 그렇게 되면 대학의 전공학문에 대한 탐색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또 대학에 들어와서 기초교양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미 고등학교 때 인문교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의 입학은 학부제에 의한 계열별 입학이 아니고 전공학문이나 전공학과로 입학한다. 단,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학과들은 자연계열이나 응용계열의 경우, 통폐합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말은 인문학적 소양을 가르친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학문의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말이다. 교육의 종적 연계성이 확보될 때 학문이 발전한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과정의 종적 연계성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있으며 학문의 인프라는 인문학의 발전에 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입시교육에 쫓겨 인문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교육부는 다기능 다전형을 내세우며 특기자 선발을 강화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인문교양 교육의 부실을 초래할까 염려스럽다. 인문교양 교육을 토대로 하지 않은 전문성과 창조성이란 분절화된 전문성, 파편화된 창조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와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전문가'를 만들어 낼 따름이다.

요컨대, 대학 입학과정(input)에서 대학교육의 종적 연계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5지선다형 고르기 평가, 논술에서도 말하기를 전제하지 않는 모범답안, 대학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야기하는 잠재력의 말살, 인문학 소양의 무시 등을 들 수 있다.

3. 대학졸업과정에서 교육의 종적 연계성

대학교육의 종적 연계성은 입학과정에서뿐만이 아니고 졸업과정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대학교육과 사회진출의 사이에 종적 연계성도 없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대생들이 교수가 가르치는 법학강의는 대충 들으면서 따로 신림동 고시학원에 다녀야 하는 현상은 그 한 예다.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교수도 아니고 일반인이다. 사법시험뿐만이 아니고 교원 임용시험도 마찬가지다. 대학과정에서 공부를 잘한 것이 사회진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우선 첫째로 대졸의 인재 검증방식에 아직도 고르기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고르기에 의한 평가는 초·중등 교육뿐만이 아니다. 예컨대, 경찰 고위간부 승진시험의 문제들을 보라. 아직도 고르기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뿐만이 아니다. 사법시험이며 교원임용시험 등에 아직도 고르기가 남아있다. 고르기가 아닌 문제라 하더라도 암기식임은 마찬가지다.

둘째로, 가르친 교수가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회진출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교수가 대학에서 하지 못하니 대학교육과 취직시험이 따로 놀게 된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각종 국가고시가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국가시험에 대학교육의 전문성이 살려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 판검사는 비전문직인가?

사법시험, 회계사, 교원임용 고시 등 각종 국가 고시는 임용제가 아니라 자격시험제로 하고 그 시험은 대학에서 교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교육의 종적 연계성은 초·중등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직업교육이나 국가정책에의 반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교육과 평가가 따로 놀면 대학 교육은 정상화되지 않으며, 대학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학문도 생산성을 잃는다. 이는 고등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 무시험 전형과 교장추천제가 고려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다. 사법시험 준비생이 법대 교수 강의를 대충 듣고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비싼 돈을 들여가며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교육과 평가가 따로 놀기 때문이다.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시험의 경우도 논문과 구술, 토론시험으로 해야 한다. 사법시험, 교원임용시험에서 일부 과목이 5지 선다형 고르기로 치러지고 있는 것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

우리 초·중등교원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것도 문제다. 교원양성을 사범대학이 맡으면서 한국 인문학은 인문정신이 형성되는 인간성장기에 인문학적 소양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로부터 인문학적 소양을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온다. 우리 대학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대학에 들어와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배울 기회가 없다. 인문학적 소양을 배우지 못한 그들이 나중에 교사가 된다.

인문학적 소양을 배우지 못한 것은 대학교수들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후배교수에게 들은 말이다. 대학에서 성명서를 쓰게 되었는데, 사회과학 전공교수에게 맡겼는데도 글을 못 쓰더라는 것이다. 내용이 부실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장작법의 기본이 안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교수나 초·중등교원뿐만이 아니다. 사회 각 분야의 인재들이 모두 그렇다. 우리 초·중등학교와 대학에 인문학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학문에 창조적 생산성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읽고 쓰고 말하기 교육, 비판과 토론의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은 학문과 교육을 살리는 길은 바로 말하기와 쓰기 교육을 살리는 것이다.

특별히 교수 임용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인재 검증 방식, 평가방식은 그 사회의 교육, 나아가서 학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특별히 교수 임용 방식은 사회의 모든 인재 검증 방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교수 임용은 실력에 의해서보다 학벌 패거리, 인맥 패거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이 속에서 학문 발전을 위해 절대 중요한 내부적 비판체계가

형성될 수 없다. 재임용은 교수의 학문연구와 교육능력에 의해서보다는 학문외적, 교육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것은 자연과학에 비해 비판과 토론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인문학의 발전에 암적 요소이다.

학문의 발전은, 특히 인문학의 발전은 비판과 토론을 그 출발로 한다. 그러나 대학의 서열화와 함께 한 사회의 인재배출의 독점은 내부비판 체계 형성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교 출신, 특정학교 출신 교수 비율이다. 한 사회 인재층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수채용 방식이 잘못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상에서 말한 대학교육의 종적 연계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입학과정, 졸업과정, 대학과정 등이 그것이다. 대학과정에서의 종적 연계성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교육적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은 교육적 관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 관계도 가지고 있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학문적 관계는 대학교육의 횡적 연계성에 속한다.

4. 대학교육의 횡적 연계성

대학교육의 횡적 연계성은 교수와 교수 사이의 학제간 연구와 소통, 교수와 학생 사이의 학문적 관계, 대학과 사회의 협동관계들로 구성된다.

인문학은 대학 교육의 종적 연계성을 위한 인프라로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은 학문의 횡적 연계성 즉, 학제간 연구, 산학협동,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인프라(횡적 연계성을 위한 매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인문학, 혹은 정신과학은 그 자체로서 자연과학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기술이나 경제와 구분되는 사유와 윤리를 추구하는) 독자적 학문세계이다. 인문학을 학부제 하에서 기초교양과정쯤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에서 모든 학문은 전공학문으로서 부전공이나 복수전

공, 연계전공, 복합전공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렇게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거나 의무화되면 대학 교육과정의 횡적 연계성,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학과 구획중심을 벗어나 대학 교육의 횡적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수중심을 토대로 해야 한다. 교수중심을 토대로 하면 진정한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지고 사회와의 연계도 활성화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구중심 대학론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문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직업중심, 교양중심 대학을 두는 것은 대학의 기능별 서열화에 다름 아니다. 대학은 크게 학문연구와 전문지식 교육 역할을 한다.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은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에서 수업은 교수와 학생이 함께 대등하게 참여하는 토론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 적어 암기하는 주입식 교육에서는 학문의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가능하면 교수와 학생은 동그렇게 둘러앉는 것이 좋다. 비판과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원탁토론, 원탁학문, 원탁교육이라 부르고 싶다. 학문생산이나 학문실천을 위한 방식으로 토론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수의 강의는 교육과정에 얽매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교수의 강의 개설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수의 강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수는 자신의 전공학파나 전공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이 연구한 것을 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학 교수가 의학에 관련된 질병사를 강의할 수도 있고 혹은 중세사 전공자가 근대사를 강의할 수도 있다. 단, 강의는 늘 새로운 내용이어야 한다. 학기마다 강좌명과 강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교육과정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동일과목을 강의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어떤 대학의 한 사학과 교수는 학기마다 동일한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1학기에는 인문대학 사학과에서 2학기에는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서 동일과목

을 강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은 전국의 대학들이 모두 비슷한 강좌명의 강의를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학문의 생산성이 없다.

강좌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한다. 교육과정 에 따라 강좌 명이 정해져 있는 강좌와 교수가 자유로 개설할 수 있는 강좌가 그것이다. 혹은 교수 강의 중심의 강좌와 세미나 중심(교수와 학생 상호간의 발표와 토론)으로 나눌 수도 있다. 교수는 이 두 범주에서 각기 한 강좌씩 도합 두 강좌를 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문의 창조성과 생산성이 나온다. 교수는 늘 새로운 내용의 강의를 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교수의 강좌내용이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교수의 학문 파트너인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학생들이 한 학기에 7개 과목 이상(21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학 교육이 암기·주입식이라는 점을 웅변해 준다. 대학의 수업이 교수와 학생의 질문과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학문과 교육은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학문과 교육의 일치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 후속세대로서 학문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학문연구에 도움을 받는다. 학문과 교육이 따로 늘면 그만큼 학문의 생산성은 떨어진다.

대학에서의 평가방식도 모범답안을 암기하여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 모여 시험치는 일제고사 방식을 지양한다. 수업시간에 발표와 토론이 활성화되면 교수는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의 능력을 보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을 마친 후 따로 논문을 내게 하거나 개인을 대상으로 혹은 분반 그룹을 대상으로 구술면접시험, 토론시험을 치게 한다. 이것이 연구와 교육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원탁토론, 원탁학문, 원탁교육이다. 대학이 이렇게 바뀌면 시험 답안 커닝을 위해 강의실이나 책상 위에 낙서하지 않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의 학문과 교육과 평가는 원탁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탁토론은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학문 창조성과 공동체성을 위해서도 절실

하다. 교육적인 효과에서 볼 때 한 학생이 열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열 명의 학생이 같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문답, 대화,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문의 창조성을 위해 토론을 강조함은 진리의 섬광은 이견들이 서로 부딪힐 때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과 교육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려는 신자유주의의 창조성은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창조성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창조성이란 돌연변이적 환상이 자연선택적 보편이성과 만나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할 때 나온다.

5. 맺는 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학의 학문과 교육의 종적, 횡적 연계성이다. 종적 연계성과 횡적 연계성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은 인문학이 한다고 본다. 교육의 종적, 횡적 연계성의 정도가 학문의 발전을 결정한다. 학문과 교육의 발전이란 창조성과 공동체성의 수준에 있다. 그 창조성과 공동체성을 위해서는 비판과 토론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인문학의 인프라가 구축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문학은 자연과학이나 응용학문의 보조역할이나 하는 학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이 자연과학과 대등하게 취급될 때 비로소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의 세계는 자연과학적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한 인과관계적 설명이 불가능한, 정신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인문학은 바로 자연과학이 양화할 수 없는 세계에 주목하는 학문들을 말한다. 우리는 경험세계와 물질문명이 인간 정신과 의지를 최초의 원인으로 하고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적 존재이다.

학문 인프라로서 인문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학문과 교육의 종적 연계성은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의 인문교양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정책 및 전문가 직업교육을 위한 창조성과 공동체성으로 연결된다. 종적 연계성이란 사람이 학문과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때까지의 과정이다. 그 매개역할을 인문학이 한다는 말이다. 둘째는 학문의 횡적 연계성, 학제간 연구,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역할로서 인문학의 기능(말과 글, 철학적 역사적 논리, 비판과 토론)이다. 횡적 연계성이란 학문과 교육이 사회 각 분야와 갖는 소통을 말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적 소통과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비교문화 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이 데올로기나 이해관계의 갈등이 해결된다. 인문학을 매개로 한 사회적 소통의 정도가 학문과 교육의 실천성을 좌우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자연과학과의 대등한 위치에서의 상호소통이다.

우리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학문 인프라로서의 인

문학적 토대가 없는 데서 비롯되었다. 인문학적 토대를 구축하여 대학교육의 종·횡적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문답, 대화, 토론을 존중하는 학문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원탁토론, 원탁학문, 원탁교육이라 부르고 싶다. **한**

강치원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객원교수를 지냈고 현재 사회단체인 역사문화아카데미의 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중세의 정치적 갈등』이 있고, 『마르실리우스 정치사상의 중세성과 근대성』, 『중세 프란치스코회 청빈론의 역사』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